

Françoise Tétu de Labsade

1938년 출생하여, 1964년 그르노블 대학을 졸업하고 로랑티엔느 대학을 거쳐 1967년 이후 캐나다 라발 대학 교수로 재직 중. 퀘벡 지역 불어권 대학교수 협회의 회장을 역임하는 등 퀘벡의 문화, 북미 대륙의 불어권의 문학과 문화의 전문가로 활동. 특히 퀘벡의 문학과 문화를 주제로 다수의 강연과 학술대회에 참가하였음. 주요 저서로는 *Le Québec, un pays, une culture* 외에, *Le français dans le monde*, *Les Amis de Sèvres* 등의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 게재.

자기 동일성의 단장(斷章)들

프랑스와즈 떼뛰 드 랍사드

“나의 퀘벡, 나의 빠져린 대지, 나의 감미로운 대지
바람의 숨결 속에서 숨쉬는 나의 조국”¹⁾

자기 동일성이란 단어에서 우리는 동일한 문화와 동일한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집단의 특질을 규정하는 단일성의 원리를 떠올리게 됩니다. 현대 사회는 성명, 출생일과 출생지, 현주소 등으로 한 개인을 요약하는 증명서를 종종 부과합니다. 사진은 그 속에 나타난 인물이 증명서에 상세히 기술되고 있는 인물과 동일인이라는 사실을 보장해 줍니다. 또한 자기 동일성이란 말에서 우리는 동일한 사회에 속하는 사람들의 유사성과 공통점을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타인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특질들을 어떤 순서에 의거해 소개하기도 합니다.²⁾ 사실 모든 개인, 더 나아가서는 모든 민족은 종종 자신의 자기 동일성에 대한 부분적인 인식만을 하고 있으며, 자신이 노리는 효과, 시기, 대화 상대방에 따라 자신의 동일성 중에 어떤 특질들만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동일성은 불변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 존재는 진화하고 개인은 변화합니다. (어떤 사회들에 있어서 결혼을 하게 되면 여

1) 가스통 미롱 Gaston Miron, 『수선된 인간』, 몬트리올, 몬트리올 대학 출판부, 1970

2) ex. 모르드카이 리슐레 Mordecai Richeler는 자신을 몬트리올의 영어권 유대인 작가로 소개하면서, 순서대로 자신의 소속을 밝히는 데, 이러한 소속은 그로 하여금 그의 동포들인 퀘벡인들, 모두가 작가, 유대인, 영어권 주민, 몬트리올 사람은 아닌 퀘벡인들에 대한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오 캐나다, 오 퀘벡/ 분단된 나라를 위한 진혼곡’, Les éditions Balzac, “주제의 핵심”, 1922

자들은 결혼과 동시에 그전까지의 이름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역사에 있어서,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자신들을 정의내려야 했던 민족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어느 일정한 시기에 자신들을 가장 잘 대표해주는 선택된 가치들에 일종의 우선순위를 정해 놓는 것입니다.

퀘벡인들은 지금처럼 항상 퀘벡인이라고 정의되지는 않았었습니다. 처음에는 캐나다인이었고, 후에는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캐나다인이었으며, 1960년대에 와서야 스스로 퀘벡인이라고 단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적절하게 단어들을 사용한다고 공언하는 작가들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들 중에서 가장 정확한 지표, 그렇지만 또한 오늘날의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을 부분적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는 지표가 됩니다.

여러분에게 퀘벡의 자기동일성에 대한 단장들을 제시하면서, 저는 또한 우리의 정신적 스승들이기도 한 우리의 대작가들 뒤로 몸을 숨기겠습니다. 자신들의 글을 우리에게 전해 주어야 한다고 판단했던 작가들의 머리 속에서 오랫동안 무르익은 그 문장들을 다시 여기 옮기도록 할 것입니다. 인용이란 현대미술의 한 경향이기도 합니다. 화가들은 자기들보다 앞서 있었던 사람들을 참조하며, 그럼으로써 그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세월에 따라 진보하고, 또한 급격한 변화를 보이기도 한 매우 특징적인 이념을 지닌 퀘벡 사회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이러한 작가들을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퀘벡문학에서 이끌어낸 단장들은 퀘벡의 자기동일성의 편린들입니다. 그 편린들의 단일성을 재구성해서 전체적으로 이를 파악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과거에 퀘벡 사회를 이끌던 가치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불어권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프랑스에 대한 퀘벡 작가들의 태도가 과거에는 어떠했으며 또한 지금은 어떠한 것인가를 아는 것은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문학과 지배이념

우선 문학이 열렬히 수호하는 지배적 이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세기 동안 일군의 가치들이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고, 그러므로 사회적 조건 하에 놓여 있는 문학도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퀘벡에 있어서 지배이념은 무엇보다도 먼저 카톨릭 교회가 꿈꾸는 인간상입니다.

퀘벡인의 농업적 소멸

1846년 파트리스 라콤브 Patrice Lacombe는 『아버지의 땅』이란 소설을 당대의 어조로 다음과 같이 끝맺고 있습니다. 그가 그리고 있는 퀘벡은 당시의 프랑스 문학에 종속되어 있고, 그 문학을 모방하지만, 도덕적 문제로 해서, 즉 풍속적으로 위험한 프랑스 소설들과, 왕들을 시해한 혁명적인 프랑스인들의 타락한 풍속들을 지닌 프랑스로부터 구분되고자 합니다.

“샤를르는 팔렸던 땅을 다시 샀다. 15년 간의 유적 생활 속에서 불행하게 살던 이 가족은 마침내 조상들의 유산을 다시 소유하게 되었다. [...]

어떤 독자들은 이 이야기에서 비극적 결말을 기대했을지도 모른다. 소설의 주인공들이 차례로 무대로부터 갑자기 사라져 버리고, 근래의 많은 소설들에서 대개 볼 수 있는 끔찍한 결말을 기대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가 글을 쓰고 있는 나라는 일반적으로 그 풍속이 소박하고 순수하다는 점, 또한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소모하려고 하는 글이 만약에 살인, 독살, 또는 자살로 끝나게 된다면 이러한 소모는 현실과 너무 떨어져 있게 되고 더 나아가서 너무 우스꽝스럽기까지 할 것이라는 점을 이러한 독자들은 참작해 주기 바란다. 그 문명에 의해서 풍속이 문란해진지 오래된 나라들에게 그들의 피투성이 소설들을 맡겨 놓기로 하고, 우리는 대지의 아들, 종교적이고 정직하며, 풍속과

품성이 온화하고, 자만이나 과시없이 안락함과 행운을 누리며, 가장 큰 역경들을 체념과 인내로써 감수해내는, 있는 그대로의 우리들의 모습을 그리기로 한다. 이러한 대지의 아들은 자신의 일생을 마치면서 오직 그의 아버지가 잠들었던 침대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기를,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마지막 휴식처를 알리기 위해서 소박한 나무 십자가만으로 장식된 아버지의 묘소 곁에 자신이 자리를 갖게 되기를 바랄 뿐이다.

그러므로 즐거운 이 가족의 모습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붓을 대고자 한다. 아버지 쇼뱅과 그의 아내 그리고 마르그리트는 전원의 신선한 공기 속에서 오랜 동안의 고통과 가난으로 쇠약해진 건강을 곧 되찾았다. 조상들의 땅에 다시 자리잡은 이 가족 속에서 기쁨, 안락 그리고 행복이 다시 피어 났으며, 이러한 행복은 얼마 후 아들 쇼뱅이 인근의 농부의 딸과 결혼함으로써 더욱 커졌다.”³⁾

19세기에도 계속해서, 그 당시 우리가 캐나다인이라고 불렀던 대다수의 퀘벡인들은 그들이 개간한 땅을 떠나지 않기를 소망했습니다. 대지의 소유는 그 근간이 카톨릭 종교, 불어, 농업적 소명이라고 요약될 수 있을 캐나다의 자기 동일성을 수호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농부가 도시에 와서 잡화상이나 술집 주인, 또는 마차꾼 등으로 정착하기 위해 시골의 땅을 파는 것을 볼 때, 나는 고통으로 신음하지 않을 수 없다.”⁴⁾

주인공인 장 리바르Jean Rivard는 300 페이지에 걸쳐 뻘뻘하게 쓰여진 책 속에서 이러한 관찰을 끈질기게 견지하고 있습니다.

3) 파트리스 라콩브, 『아버지의 땅』, 초판은 익명으로 1846년 「캐나다 문예, 음악 앨범」에서 간행되었다. 1871년 몬트리올의 보슈맹 & 발르와 출판사에서 다시 출판 되었으며 그 이후로 여러번 중판을 거듭했다.

4) 앙트완느 제렝-라즈와 Antoine Gérin-Lajoie, 『장 리바르』, 캐나다의 야회에서 1862년 출판.

견뎌내야 한다는 벅찬 의무

아메리카의 대지에서의 캐나다인의 역할과 소망에 대한 이러한 견해는 20세기에도 지속됩니다. 도시는 유혹적인 함정이고, 미국이란 나라는 위험한 신기루입니다. 도시와 미국은 1850년에서 1930년에 걸쳐 퀘벡인의 절반을 끌어들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뉴잉글랜드를 향해 퀘벡의 영토를 떠난 사람들은 근 백만명에 달합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작은 캐나다'를 세웁니다. 마리아 샤프들렌느 Maria Chapedelaine는 1910년경에 퀘벡의 커다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300년 전에 이곳으로 와서 정착했다... [...]”

우리는 바다 건너로부터 우리의 기도와 노래를 가지고 왔다. 그 기도와 노래는 여전히 같다. [...]

우리는 가스페로부터 몬트리올에 이르고, 성-요한-이베르빌에서 엥가바에 걸치는 새로운 대륙의 한 구역에 족적을 남겼다. 여기에서 우리가 가져온 모든 것은, 즉 우리의 문화, 언어, 미덕 그리고 우리의 약점까지도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신성하고 범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꽤히 야만인들이라고 불렀던 외국인들이 우리 곁으로 왔다. 그들은 거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거의 모든 부를 장악했다. 하지만 퀘벡에서는 아무 것도 바뀌지 않았고 또한 앞으로도 아무 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의 증언이기 때문이다. 우리 자신과 우리 운명에 있어서 우리는 오직 다음과 같은 의무만을 명확하게 이해했다. 즉 견디고 우리 자신을 견지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자신을 견지했다. 아마도 몇 세기 이후에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돌아보고 다음과 같이 말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죽을 줄 모르는 종족이다...' 우리가 하나의 증언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부모가 정착했던 지역에 머물러야 하고, 그들이 살았던 방식대로 살아야 하며, 그들의 가슴 속에 자리잡았지만, 표명되지 않은 계명, 즉 퀘벡에서는 어떠한 것도 죽을 수 없으며 변화될 수 없다는 계명을 따르며, 그것을 우리의 가슴 속에 묻고 또한 수많은

은 우리의 자손들에게 전수해야 하는 것이다.”⁵⁾

루이 에몽 Louis Hémon이 적절하게 지적한 모든 퀘벡인들의 가슴 속 깊이 담겨져 있는 소속감에는 또한 이러한 소속감이 동일한 대륙 위에서 사는 2억 5천만의 영어권 주민들의, 그리고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이유로 자신들을 선택해 준 사람들과 다른 견해를 강제로 부과하는 몇몇 정치가들의 거대한 압력에 맞서서 지속되어야 한다는 확신이 수반됩니다.

25년 후에, 펠릭스-앙트완느 사바르 Félix-Antoine Savard는 자신의 소설의 서두에서 마리아 샤프들렌스를 언급하면서 위의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므노는 창가에 앉아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우리는 300년 전에 여기 와서 정착했다. 우리는 바다 건너로부터 우리의 기도와 노래를 가지고 왔다. 그 기도와 노래는 여전히 같다. [...]

우리가 꽤히 야만인이라고 부르던 외국인들이 우리 곁으로 왔다. 그들은 거의 모든 권력을 쥐고 거의 모든 부를 장악했다. 하지만 퀘벡에서는...>

마치 갑자기 그 말들 위로 어둠이 질어지거나 하듯이, 그것을 읽고 있던 마리의 목소리가 주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퀘벡에서는...>

그녀는 책 위로 머리를 숙이고 다시 큰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그러나 퀘벡에서는 어떤 것도 바뀌지 않았다.>

마치 그가 금방 읽은 내용들이 그의 발 밑에 어둠의 심연을 열어 놓기라도 한 것처럼 불현듯 므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떤 것도 바뀌지 않았다... 어떤 것도 바뀌지 않았다.>하고 그는

5) 루이 에몽(1913년 사망), 『마리아 샤프들렌스』, 파리, 처음에 「시대」지에서 간행되었고, 이후 1924년 그라세 출판사에서 출판되었다.

중얼거렸다...

자신의 깊은 곳으로부터 솟아나오는 사유들을 분별하려고 노력하면서 그는 딸에게 말했다.

<책을 계속 읽어라.>

그녀는 다시 읽기 시작했다.

<어떤 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의 증언이기 때문이다. 우리 자신과 우리 운명에 있어서 우리는 오직 다음과 같은 의무만을 명확하게 이해했다. 즉 견디고 우리 자신을 견지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자신을 견지했다. 아마도 몇 세기 이후에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돌아보고 다음과 같이 말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죽을 줄 모르는 종족이다...'

므노의 시선이 불타올랐다.

<됐어!>하고 그는 딸에게 말했다.

그녀는 무릎 위에 책을 떨어뜨렸다.

죽을 줄 모르는 종족!

이 말은 이 초라한 집 안에서 마치 봄철, 숲속의 빈터에서 잡목이 불붙은 것처럼 타오르기 시작했다."⁶⁾

루이 에몽의 여주인공은 여기에서 자신의 문학적 생애를 끝내지 않았습니다. 1992년 퀘벡의 도서전에서 가브리엘 구르도 Gabrielle Gourdeau는 세기 초의 마리아를 다시 등장시킨 『마리아 샤프틀렌느, 혹은 되찾은 낙원』이라는 저작으로 로베르-클리슈 상을 획득하였습니다. (이야기 속의 시간인) 1970년 현재 그녀는 80대에 들어서 있습니다. 구르도는 '조용한 혁명'의 색채에 맞춰 다시 그려진 기묘하고 쇠락한 노파를 그려보여 주고 있습니다. 성 요한 호수 근처에 살던 온순한 소녀는 세상 물정에 밝아졌습니다. 그녀는 읽는 법을 배웠고 라발 대학에서 물론 불어 공부도 했습니다. 그녀는 1980년 5월의 국민투표가 있던 날 저녁, 천국을 다시 찾습니다. 또한 천국에서 프랑스와를 만나 진정한 행복을 되찾게 됩니다.⁷⁾ 또한 그녀는 41%의 퀘벡인이 선

6) 펠릭스 앙트완느 사바르, 『므노, 목재 운반인』, 퀘벡, 가르노, 1937.

7) 「마지막 날에 천국에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는 보통 새해 인

거의 참패로 인한 쓰라림을 맛보게 되는 바로 그 전에 죽는 행운을 누립니다.

최고의 세상? 그렇지 않다.

루이 에몽의 꽤 목가적인 소설과는 반대로, 알베르 라베르쥬 Albert Laberge는 1918년 『La Scouine』을 펴내는데, 그 ‘기괴하고 더러우며 성질이 못된’ 주인공들은 마치 에토르 스킨라 Ettore Scola의 영화에 서처럼 쓰디쓰고 쉰 빵으로 식사를 합니다.

“키가 매우 작은 그 노동자는 정말로 못 생긴 사람이었다. 매우 짙은 몸통 위에 군림하고 있는 두부거대증 환자처럼 거대한 머리는 그 몸통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것 같았다. 머리털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머리는 풀잎이 거의 자라지 않는 황량한 모래 언덕과도 비슷했다. 천연두로 엷은 얼굴을 한 그는 안색이 마치 황달을 앓고 있는 사람 같았다. 게다가 그는 애꾸였다. 이가 거의 빠진 그가 입을 벌릴 때면, 나무 등걸처럼 상하고 거무스름한 치근만이 보였다. 그는 재단사란 별명을 가진 밥티스트 바꾸였다.”⁸⁾

우리는 여기에서 프랑스와 파라디 François Paradis, 유티롬 가농 Eutrope Gagnon 그리고 조종 Joson 등이 그리던 육체와 정신이 건강한⁹⁾ 순박하고 믿음직한 모습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이미지를 가진 호인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의 퀘벡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아름답고 덕성스러운 사람들만이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사를 할 때 함께 해 주는 덕담이었다.

8) 알베르 라베르쥬, 『라 스쿠인 *La Scouine*』, 몬트리올, 1918, 그리고 1981년 몬트리올의 Les éditions Quinze에서 중판되었다.

9) cf. 리샤르 데자르텡 Richard Desjardins의 노래, ‘호인’, 1990.

사회의 도시화

현재 350만의 퀘벡인구가 수도인 몬트리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1991년의 통계를 따르자면 퀘벡인구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농촌사회는 큰 변동을 겪었습니다. 도시화되면서, 농촌사회의 가치관이 바뀌었고 그 자기동일성 또한 1940년까지의 그것과는 매우 다릅니다.

퀘벡시의 저지대 지역인 성 소외 St Sauveur지역은 플루프 Plouffe 10)가의 무대로 등장하는데, 전쟁 바로 후에 일어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몬트리올 시내 한 가운데에 있는 웨스트마운트의 부자촌 밀자락에 자리잡은, 소란스러운 철도가 가로지르는 빈민촌이 있는 성 앙리 지역은 가브리엘 르와 Gabrielle Roy¹¹⁾의 소설의 음산한 배경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근간의 소설들과 베스트셀러들의 배경으로 점점 더 수도 몬트리올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투¹²⁾가 거니는 몬트리올은 1983년에 발간된 『최초의 미리암』의 몬트리올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현대적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주인공들은 '정치적 풍토', 독일에서의 녹색당의 상승, 그리고 국가 상황을 화제로 삼습니다.

“<어떤 나라?>, 마리-리르 Marie-Lyre는 묻는다. 1980년 5월의 국민투표 이후로, 그녀는 더 이상 <퀘벡>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다. 반드시 언급해야 할 경우에는, 마치 나라 전체가 몬트리올로 축소되었기라도 한 것처럼, 그 대신 <몬트리올>이라는 이름을 쓴다. 마리티테 Marité는 친구의 말 속에서 이러한 변화를 눈치챘지만, 국민투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각자 할 수 있는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

10) 로제 르블랭 Roger Lemelin, 『완만한 비탈길 밑에서』, 몬트리올, Les Ed. de l'Arbre. (르블랭은 1992년 사망했다)

11) 가브리엘 르와, 『싸구려 행복』, 몬트리올, 보슈맹, 1945, 1947년 펴미나 상 획득.

12) 이브 보슈맹 Yves Beauchemin, 『르 마투(건장한 남자)』 Le Matou, 몬트리올, 퀘벡-아메리카, 1985. (불어권 지역에서 10만 부가 팔렸음)

기에 아무 것도 모르는 척한다.”¹³⁾

지평선이 보이던 넓고 비옥한 토지는 점차 도시로 바뀌어 갑니다. 미셸 트랑블레 Michel Tremblay는 몽-르와야알¹⁴⁾의 언덕에 있는 도로와 골목길들로 독자들을 이끅니다. 가브리엘 구르도의 마리아 샤프들렌느는 퀘벡에서 살며 라발 대학에서 문학 뿐만이 아니라 욱설sacrer¹⁵⁾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퀘벡은 이민국가입니다. 새로운 퀘벡인들인 몬트리올의 영어권 주민들은 대부분의 불어권 주민들의 자기동일성과는 다른 퀘벡의 자기동일성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몬트리올은 사실 이 두 그룹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퀘벡에서의 자기동일성의 허구』¹⁶⁾를 볼 것) 우리 모두는 각자 우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공동체, 각각의 그룹은 자신의 우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나는 또한 이처럼 외국인에게 열린 사회의 문화와 자기동일성이 오늘날 다문화주의가 설파하고 있는 모델들보다 더 우위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대 퀘벡 사회는, 삶의 관습, 종교 수행의 양태에 대해 매우 관용적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마르코 미콘 Marco Micone은 소설과 논픽션의 중간 쯤되는 저작에서 ‘필연적인 적용에의 요구와 기원에 대한 향수 사이에서의 분열’을 조심해서,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그려보이고 있습니다.¹⁷⁾ 이러한 통합의 문제에 있어서 현재 몬트리올의

13) 프랑신느 노엘 Francine Noël, 『최초의 미리아』, 몬트리올, VLB출판사, 1987.

14) 미셸 트랑블레, 『몽 르와야알 언덕의 연대기』, 몬트리올, 르메악, 1978-1991.

15) 불경스러운 증좌, 초강력한 교회에 대해 자신을 확립할 수 있다고 믿었던 말버릇이 나쁜 사람들만이 사용했었다. 최근 이 삼십년 간의 탈기독교화는 축성sacrer이라는 단어의 종교적 함의를 사라지게 했다.

16) 셰리 시몽 Sherry Simon & al., 『퀘벡에서의 자기동일성의 허구』, 몬트리올, XYZ, 1991, 또한 레진 로벵 Régine Robin, 『퀘벡인』, 몬트리올, 퀘벡-아메리카, 1983 참조.

퀘벡 대학 총장인 클로드 코르보(Claude Corbo¹⁸⁾)가 가장 설득력있는 에세이를 아름다운 문체로, 그러나 내용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의 논조에는 아무런 모호성도 없습니다. “나는 우리들의 집단적 모험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차후로는 완벽한 것이 될 소속감, 애착, 뿌리내림을 증명하고자 한다.” 그는 침착하고 감동적이며 설득력있는 어조로 자신의 저작의 제3부에서 통합의 선택이라는 주장을 밀고 나가며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퀘벡에서의 여성운동의 힘

근년의 퀘벡의 자기 동일성의 특징들 중의 하나는 분명 여성들에 의해 주장된 자리입니다. 한편 이러한 자리는 매우 빠르게 여성들에게 부여되었습니다. 소설가, 극작가, 가수, 수필가 등 모든 부류의 여류지성인¹⁹⁾들은 불어가 오랜 남성 지배에 의해 너무 남성화되었다고 판단하며 이러한 불어를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프랑스인들, 더욱 놀라운 것은 프랑스 여성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²⁰⁾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언어와 자기동일성의 방향을 바꾸는 자연스러운 운동의 하나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더구나 이태리의 볼로뉴 대학에서는 이미 13세기부터(!) 여성들이 신학과 로마법의 교수였다는 것을 상기해야겠습니다.

프랑신느 노엘 Francine Noël의 여주인공들 중의 하나는 이름이 마리-리르-플루에 Marie-Lyre-Flouée입니다. 이 이름의 머리 글자는 바

17) 마르코 미콘, 『매혹적인 무화과 나무』, 몬트리올, 보레알, 1992.

18) 클로드 코르보, 나의 소속, 퀘벡의 상황에 대한 에세이, 몬트리올, VLB 출판사, 1992.

19) 니콜 브로사르 Nicole Brossard, 올랑드 빌메르 Yolande Villemaire, 마들렌느 가농 Madelaine Gagnon, 쉬잔 자콥 Suzanne Jacob, 드니즈 부셰 Denyse Boucher 등.

20) 만약 에디트 크레송 Edith Cresson이 퀘벡에서 그러한 훌륭한 역할을 수행했다면 그녀는 아마도 수상에 임명되었을 것이다.

로 여성운동(MLF)의 이니셜입니다. 80년대 퀘벡의 자기동일성이 19세기나 1920년대의 자기동일성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프랑스에 대한 퀘벡작가들의 태도

불어를 사용하고 있는 퀘벡은 분명히 (제 동료들 중의 어떤 이들은 '치명적으로' 라는 말을 사용할 것입니다) 프랑스로부터 영향을 받았습니다. 퀘벡 작가들의 프랑스에 대한 태도는 어떠했으며, 또 현금에 있어서는 어떠한가? 어머니-조국인가 아니면 우리의 문학적 모태인가? 이점에 있어서도 남겨진 글들이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퀘벡의 과거 - 문화적 식민지

시인이자 '퀘벡 애국시파'의 주창자인 옥타브 크레마지 Octave Crémazie는 1860년 몬트리올에서 서적상이란 고달픈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몇년 후에 파리로 추방된 그는 19세기 말의 퀘벡에서의 불어권 작가들의 불모적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캐나다에 부족한 것은 고유의 언어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만약 이러쿼이어나 휴론어를 사용한다면, 우리의 문학은 살 것이다. 불행히도 우리는 보쉬에나 라신느의 언어를 매우 빈약하게 말하고 글을 쓸 뿐이다.

아무리 글을 쓰고 애를 써 보았자, 우리는 문학적 관점에서 볼 때 하나의 식민지에 불과할 것이다. 캐나다가 독립국가가 되고 그 국기를 각국의 국기들과 나란히 펴려이게 한다고 할 지라도, 우리는 그저 문학적인 식민지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우리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벨기에의 경우를 보라. 벨기에 문학이란 것이 있는가? (벨기에 문학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크레마지를 이해합시다)

다시 말하건대, 우리가 휴론이나 이러쿼이어를 사용한다면, 우리 작

가들의 업적은 구세계의 주의를 끌 것이다. 아메리카의 숲 속에서 태어난 이 남성적이고 예민한 언어는 외국인들에게 새로운 감동을 줄 생생한 시정을 가질 것이다. 사람들은 퀘벡이나 몬트리올의 식민지 주민들에 의해 불어로 쓰여진 책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을 테지만, 이러쿵이어서부터 번역된 시나 소설 앞에서는 황홀해 할 것이다.”²¹⁾

이보다 더 명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1867년 크레마지는 ‘아직도 식민지 주민’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불어 문학의 미래에 대해 매우 비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는 불어권 지역 주민들에 대한 프랑스 본토인들의 문화적 우월성을 외치고 있는 셈입니다. 다행히도 우리의 작가들은 그들의 어조를 바꾸고 있습니다.

25년 후에 그 앵글로-색슨 족의 이름이 바로 주위 문화의 힘에 의한 몇몇 영어권사람들의 동화를 시사하는 윌리엄 채프먼 William Chapman은 장대한 시귀 속에서 ‘우리의 언어’²²⁾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오늘날 보면 미소를 자아내게 합니다. 1904년에 이미 극복된 모델들을 모방하여 그는 ‘열망’이란 시를 아카데미 프랑세즈에 보내는데, 혁신적인 것 보다는 전통적인 것을 중시하는 아카데미의 회원들은 이 시를 격찬하였습니다.

“우리의 언어는 꿀 족의 입술에서 태어났다.
 낱말들은 부드럽고, 그 규칙은 엄격하다.
 옛날의 영광을 노래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이 언어는 음유시인들의 노래에서 그 숨결을 길어왔다.

21) 옥타브 크레마지, 『앙리-레이몽 카스그랭 신부에게 보낸 편지』, 1867년 1월 29일.

22) 이브 뒤테이 Yves Duteil(프랑스), 미셸 리바르 Michel Rivard(퀘벡), 그리고 다니엘 라브와 Daniel Lavoie(마니토바)는 최근에 불어에 대한 매우 아름다운 상송을 만들었다. 이브 뒤테이의 상송에 상을 내린 아카데미 프랑세즈에 감사를 보내야 할 것이다.

이 언어는 라틴어의 매혹적인 음조,
 헬라 족의 힘차고 매력적인 어조,
 피렌체의 에메랄드가 분출하는 따스한 빛,
 자기(瓷器)의 선명하고 투명한 광택을 지니고 있다.

[...]

이 언어는 처음으로 메사스베의 끝없는 삼림을
 불현듯 전율하게 만들었으며
 강가의 나무는 이 축복받은 언어의 울림을 들으면서
 고개를 숙였다.

[...]

어느날 우리의 존경의 대상인 거친 뱃사람들이
 선들과 황야의 고장으로부터 이 언어를 가져다 주었다.
 어머니들은 무릎 위에 우리를 앉히고 어르면서
 노르망디의 서글픈 옛 가락들을 들려주었다.

가파른 절벽을 떠나 우리의 숲으로 온 영웅들이
 전해준 고유의 언어를 우리는 간직하고 있다.
 때때로 이 언어가 예속되어 버렸다고 느껴어도
 여전히 영국기가 필릭이는 땅에서 승자로 남아있다.

이제는 어느 누구도 오늘날 이처럼 생기있고 단호한
 언어를 압제할 엄두를 내지 못하리라.
 압제자들도 이 언어를 말살하지는 못했다.
 이 언어는 우리 종족과 함께 영원할 것이기에.

[...]

오 고대인들의 언어여! 신의 눈길 밑에서 영원히
 빛나거라! 투쟁하고 길들이라!
 약속의 땅으로 히브리인들을 인도하던
 불기둥으로 우리 곁에 언제나 있어다오!”²³⁾

이러한 프랑스의 모범에 대한 찬양은 2차 세계대전 때까지, 아주 드물게 예외가 있었지만, 변함없이 지켜져 오던 것이었습니다. 한편 아카데미 프랑세즈의 회원들은 자신들을 계속해서 불어의 유일한 수호자로 자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매년 불어권의 대상을 수여하는 것은 그들의 임무가 되어 있습니다.²⁴⁾

문화적 자율성

50년대 말, 가스통 미롱 Gaston Miron은 프랑스 시와 거리를 유지하고자 모색하였습니다. 수필가이고 특히 시인인 그는 캐나다²⁵⁾의 상상력 뿐만이 아니라, 세느 강가와는 별 공통점이 없는 생-로랑 강가의 동물군, 식물군, 기후조건에서 필연적으로 태어난 고유의 어휘들을 보존하고자 했습니다.

그의 시집 제목인 『기워진 인간 *L'homme rapaillé*』는 매우 의미심장한 작품입니다. 그는 이 시집에서 수선되고 기워진, 퀘벡 식으로 표현하자면 기워져(rapaillé) 통합된 퀘벡인, 집단 의식이 그 위에 자리잡을 수 있는 새로운 인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의 시대’라는 시인 동인에 속해 있는데, 이 모임의 첫번째 노력은 이 나라의 이름을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프랑스 본토의 모범에 보조를 맞추려고 하는 노력이 그렇게 컸던데에 비하면, 아직 어느 누구도 생각조차 못하던 것이었습니다.

23) 윌리엄 채프먼, 『열망』, 파리, Imprimeries réunies, 1904.

24) 대부분 캐나다의 재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5) 우리가 진정 퀘벡인으로 자처하게 된 것은 60년대에 들어서였다.

“우리의 풍토는 프랑스와 다르며, 따라서 시의 시금석이 되는 우리의 감수성도 다르다. 불어권 세계에서 무엇인가를 가져다 주고자 한다면, 다른 위대한 국민시들과 같은 반열에 우리의 시를 세우고자 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더욱 찾아야 하고, 우리의 특이성과, 자기동일화 능력을 증명해 보여야 할 것이다. 끊임없이 더욱 정확한 불어, 국제적 수준의 불어를 쓰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때 우리는 그 영감과 감수성에 있어서 매우 특징적인, 불어로 쓰여진 캐나다 시, 더 나아가 우리가 본질에까지 다다를 수 있다면, 세계적인 시를 가지게 될 것이다.”
26)

60년대에, 미셸 트랑블레는 평상적인 구어인 ‘주알어(joual²⁷⁾)’로 『자매들』²⁸⁾을 씁니다. 주알어가 다가와서 발을 구르고 있습니다. 주알어는 너무 오래 계속된 문화적 식민지화의 유산인 형식주의와 구속적인 수레를 향해 곧 돌진합니다. 주알어는 그들의 흙으로부터 뿌리째 뽑혀 나와, 대부분의 간부들이 영어권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도시의 공장에서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불어권 주민들이 특히 많이 사용하는 수준의 언어입니다. 진정한 민중에 의해 이해받지 못하는 것에 절망한 지식인들과 작가들은 바로 민중의 언어인 주알어로 자신들을 표현하기로 결심합니다.

“이 현상은 설명이 가능하다. 부분적으로 일종의 구속(救贖)의 과정에서 기인하는데, 그 결정적인 사건은 갑자기 주알어가 그 진정한 차원에 도달했다는 것이었다. 즉 주알어가 우리 국민 문화의 쇠퇴의 완벽한 복사물의 차원에 접근한 것이다. [...]

병들어 있는 것은 국가이고, 부패해 있는 것은 민족 문화이며, 불구인 것은 퀘벡의 상태이고, 가장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것은 퀘벡의 영혼인데도 불구하고, 단견을 가진 우리의 엘리트들은 언어가 병들어 있

26) 가스통 미롱, 『기워진 인간』, 몬트리올, P.U.M., 1970.

27) 명확하지 않게 발음된 불어의 ‘슈발 cheval’의 음성학적 변형으로부터 비롯되었다.

28) 미셸 트랑블레, 『자매들』, 몬트리올, 르메악. 이 작품은 1968년 몬트리올의 리도 베르 극단에 의해 상연된다.

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 [...]

문학에 있어서의 또 하나의 사건은 우리와 같은 몇몇 부르즈와들이 우리의 기원, 고전 강의, 고전서를 읽으면서 보내는 저녁 시간들, 그리고 특히 우리의 언어인 불어를 포기하고 의도적으로 글을 잘못 쓰기로, 아니 사실은 진실을 쓰기로 선택했다는 것이다. [...]

나는 여기 있거나 혹은 아예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말어를 글을 쓰거나 아니면 아예 쓰지 않을 것이다. 주어진 주말어에 우리는 구속을 가하지 않는다.

훌륭한 프랑스어는 퀘벡이 소망하는 장래이지만 주말어는 바로 퀘벡의 현재이다. 29) [...]

이러저러한 미학적 원리를 들어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무시한다(on s'en crisse)³⁰⁾. 반대함으로써 그들은 우선 모든 언어의 진정한 속성에 대한 무지와 그 다음으로, 퀘벡인들의 진정한 식민적 상황에 대한 무지를 드러낼 뿐이다.”³¹⁾

서양에 있어서 대변혁의 연대였던 1968년, 미셸 라롱드 Michel Lalonde는 매우 아름다운 시에서 압제받는 언어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지배자의 위치에 있는 모든 언어는 모든 국면에서 승리하지만, 열등한 위치에 있는 언어는 조연 여배우라는 별 보람없는 역할 만을 떠맡을 뿐입니다. “스피크 화이트 Speak White”, 이는 캐나다의 영어권 주민들이 영어와 다른 언어를 자기들 앞에서 감히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기분이 상해서 내뱉는 지독한 욕입니다. 피에르 발리에르 Pierre Vallières³²⁾는 ‘아메리카의 백색 흑인들’을 변호했습니다. 라롱드 부인은 이러한 이미지를 재빨리 포착하여 오늘날까지도 감동을 전해주는 시귀 속에서 메타포를 전개하였습니다.

29) 고갱 Godin은 이 글을 1965년에 썼다. 그가 옳았다. 이 ‘현재’는 약 10년을 지속했다.

30) 이는 무시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퀘벡어에서 욕설로 사용된다.

31) 제랄 고갱 Gérald Godin, in 『선입관』, 1965년 1월.

32) 피에르 발리에르, 『아메리카의 백색 흑인들』, 몬트리올, 선입관, 1968.

“... 스피크 화이트

당신들의 언어로 편하게 지내라
우리는 원한이 깊은 민족이다.
하지만 언어의 교정권을 독점하고 있는
어느 누구에게도
비난을 던지지 말자.

세익스피어의 부드러운 언어로
롱펠로우의 어조로
베트남이나 콩고에서처럼 순수하고
지독하게 하얀 불어를 말하라
완벽한 독일어를 말하라
이빨 사이에 유태인의 표지인 황색 별을 지니고
러시아어를 말하라, 질서회복을 외치고 압제를 말하라
스피크 화이트

그것은 세계어이니
우리는 영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최루탄같은 그 언어로
곤봉같은 그 언어로
스피크 화이트
텔 어스 어게인 어바웃 프리덤 앤 데모크라시
우리는 자유란 단어가 검은 색임을 안다.
마치 가난이 검은 색인 것처럼
마치 알제리나 리틀 록의 거리의 먼지들이 피와
섞이는 것처럼

스피크 화이트
웨스트 민스터에서 워싱턴까지 릴레이로
월 스트리트에서처럼 백인들의 언어를 말하라
비 시빌라이즈드

우리에게 공손하게
 하우 두 유 두 하고 말을 건넬 때
 적절하게 말하는 법을 배워라
 우리가 너희들에게 대답하는 것을 들어보아라
 위 아 두잉 올 라잇
 위 아 두잉 파인
 위 아 낫 얼른

우리는 홀로 있지 않다는 것을 안다.”³³⁾

1968년 이 여류작가는 퀘벡에서 불어가 겪고 있는 압제를 고발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개별적인 것으로부터 보편적인 것으로 훌륭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항상 태도를 정하지 못하는 끔찍한 주저나 작가의 불모성을 이끌어 올 수 있는 분열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정신과 의사들은 환자에게 진짜 고통을 안겨다 주는 인격의 분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베세트 Bessette의 소설의 주인공인 마랭Marin은 대학교수입니다. 그는 프랑스의 불어와 퀘벡의 불어 사이에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완전히 잠이 깨었다. 새벽 두시, 생생한 의식으로 긴장하여. 그는 저주스러운 자신의 고달픈 삶을 생각한다. 도대체 언제 다시 잠이 들 수 있을 것인가? 그는 그리스도를 생각한다. 적어도 이론의 여지없이 퀘벡적인 것이 그에게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이 취해 있거나 화가 나 있을 때면 주알어가 여지없이 달려온다. 다시 프랑스의 불어를 사용하게 된 마랭은 중얼거린다. ‘이건 정말 멍청한 일이야’ 그는 한밤중에 깨어나 신새벽이 올 때까지 잠들지 못할 것이다.”

34)

33) 미셸 라롱드, 『Speak White』, 사회주의紙, n° 15, 1968년 10-11-12월호.

인간 존재는 항상 모순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명석함을 지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라가세 족의 연대기』에서 앙드레 바나스 André Banasse는 그의 독자들이 모르는 뛰어난 손재주³⁵⁾를 가진 베르트랑을 심문대에 세웁니다. 때때로 적절하게 퀘벡인들은 심각한 과대망상증 환자로 지적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베르트랑은 자신을 과소평가하며 이러한 평가를 자신의 동족들에게 투사합니다.

“일종의 기이한 투사에 의해서, 베르트랑은 역사도 없고 미래도 없는 자신의 동포들을 매우 경멸했다. 어떤 성찰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후진적인 민족, 한치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민족,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구부정하게 허리를 굽힌 채, 저주받은 카인의 대지를 파며, 얼굴을 쳐박고 있을 민족, 손재주도 없고 두뇌도 굳어버린 민족, 인구의 절반이 비정상인일 정도로 퇴화된 민족, 길을 잃고 아메리카를 방황하며 항상 취한 채, 북부를 잃어버리고 항상 플로리다를 향해 기수를 돌리지만 언제나 생-로랑 연안에 좌초하는 민족, 언어처럼 항상 그들의 근원을 향해 거슬러 올라가 빙하의 땅에서 죽는 민족, 정신분열증에 걸린 민족, 누구를 사랑해야 할지 모르고, 잃어버린 어머니-프랑스를 눈물로 그리며, 젖가슴을 내어주면 깨물어 버리는 민족, 영어를 쓰며 치욕을 받던 아버지를 내쫓은 심술궂은 민족, 지나가는 곳마다 빈궁을 물고 다니는 누더기를 걸친 고아같은 민족.”³⁶⁾

베르트랑의 태도가 끔찍하게도 부정적이고, 이러한 태도가 1980년의 국민투표 당시, 41%의 퀘벡인들이 느꼈던 실망 때문이라고 할 때, 1987년의 이미 인용한 『최초의 미리암 *Myriam Première*』에 나타나는 프랑신느 노엘 Francine Noël의 태도는 우리에게 얼마나 힘을 주는지요! 이 여류작가는 우리를 1983년으로 이끕니다. (즉 1980년의 국민투

34) 제라르 베세트 Gérard Bessette, 『半年』, 몬트리올, 퀘벡-아메리카, 1979.

35) 그가 만약에 프랑스에 있었다면 레핀 콩쿠르에 그가 만든 물건을 출품할 수 있었을 것이다.

36) 앙드레 바나스, 『라가세 족의 연대기』, 몬트리올, 자유표현, 1980.

표 이후로) 소설의 인물들 중에는 자신의 최근작을 무대에 올리는 여류극작가가 등장합니다. 이 소설 속의 연극에 나오는 여주인공은 상상력과 힘으로 가득찬 퀘벡 불어로 능란하게 비평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마리-리르 플루에 Marie-Lyre Flouée(고유명사는 소설에 있어서 전혀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는 문어체가 한 두 세대 간에 걸쳐 느슨하게 해 놓은 구어적 전통과의 관계를 다시 공고히 해놓습니다. 마리-리르는 편견으로 가득찬 트렁크를 들고 퀘벡을 방문한 프랑스의 불어를 사용하는 비평가에게 퀘벡 문학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인식을 제공합니다. 즉 프랑스 문학과 다르며, 또한 그 차이점을 인식하고 불어를 사용하는 문학에 참여한다는데 긍지를 가지고 있는 퀘벡 문학말입니다. 비평가의 이름은 토니오 램 크루즈 Tonio Ram Crouze입니다. 마리-리르는 그에게 대답합니다. 먼저 토니오가 말합니다.

“나는 마리스 오설리번의 텍스트를 읽었습니다. 매우 흥미로웠어요.”

잠시 간격을 둔 후 그는 말을 계속한다.

“하지만 거기에는 국제적인 공명이 부족합니다. 마지막 작품이 가장 훌륭하고 풍부하다고 합니다만... [...]”

그런데, 토니오는 이 지역의 불어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돌진하며, 뉴욕을 제외한 북아메리카 사회와 퀘벡 예술에는 첨단적인 탐구가 부재한다고 못내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인내심있게 경청한다. 토니오는 다음과 같은 정구로 결론을 맺는다. “국제적인 패러다임이 퀘벡에 가장 부족한 것입니다.”

몬트리올의 비평가 그룹인 <디다스칼리>의 구성원들이 질문한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모든 것을 정확히 받아쓰고자 하는 것이다. 그들은 귀가 솔깃해 진다. 쥐스키암 Jusquiam이 말합니다.

“우리가 똥구멍들이라고 말한 거야.”

토니오가 말을 이었다.

“우리 유럽인들은 문화적 전범에 대한 자발적인 직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리-리르가 끼어들었다.

“이곳에 상륙한 유럽의 꼴때기들인 당신들을 특징지워주는 것은 직관이 아닙니다!”

그녀는 마치 여성적 직관이 혹은 여배우의 감수성이, 아니면 그 둘 모두가 상처를 받은 것처럼 부르짖었다. 그녀는 토니오가 장광설을 늘어놓는 동안 자신의 동포들이 너무나 암전했다고 생각했다. [...]

그녀는 토니오에게, 그리고 그를 통해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문화적 침입자들에게 말한다. 그 침입자들이 의식하고 있던 아니건, 죄가 있던 결백하던 간에 막론하고! 이는 퀘벡 문화를 수호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도입부는 명백하게 퀘벡 문화가 존재한다는 가정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

그녀는 램 크루즈에게 예술의 외판원들이 누리는 수입으로 만족하고 꺼져버리라고 말한다.

“우리를 복음화시키겠다고 온 그 침입자들,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한 그들의 인류학적 시선이 지긋지긋해요.”

그녀는 항상 뒤랑 Durham의 보고서를 참아낼 수 없었다! 여행 안내인 노트를 하며 귀빈들에게 퀘벡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지긋지긋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의 보고서를 읽고 그것을 해석하는 일을 하고 싶지 않다. 그들이 먼저 경청해야 한다. 그녀는 말한다.

“당신들 유럽인들은 우리를 제대로 바라보지 않으며, 우리 말은 듣지 않고 당신들 말만을 합니다. 허나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당신 램-렙트와 빈사상태에 있는 당신의 유럽, 그러나 우리는 당신들의 노래를 알고 있어요, 어머니 유럽! 우리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이곳으로 온 것입니다!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 우리의 조상들은 유럽에 등을 돌려, 거기에 폐쇄된 삶을 두고 왔습니다. 3세기 전에 왔건, 어제 왔건 우리는 모두 이민자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외국인의 변호를 부여하지 마시오. 진정한 예술작품들로 가득찬 배낭! 그러나 당신은 제국주의적 문화로써 우리에게 흥미를 줄 수 없습니다. 거기에서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당신은 주장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사는 곳에서, 우리가 원하는 곳에서 말하자면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태의연한 스타일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뒤를 돌아볼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향수를 초월하여 지속하며 살아남는 존재들입니다. 유럽에 머물러 있는 당신들 유럽인들에게 아메리카 대륙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아메리카를 단지 하나의 민속연구로 축소시키며 확신 속에서 안주합니다. 그러나 기다리시오! 판단하기 전에 기다리시오! 토착민들의 언어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라도 해보시오! 그것이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미개하고 호릿한 이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면! 캐나다에 상륙하면서 우리의 오두막집을 부수지 마시오...”

그녀는 <이 나라>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캐나다>라고 하는 단어를 언급하고 나서 말을 멈춘다.

[...]

그녀는 다시 말을 잇는다.

“그렇습니다. 힘을 넘시다! 제대로 서있지도 못하는 것이 지긋지긋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파리, 뉴욕 혹은 어느 다른 곳에서 밀려오는 아주 미소한 새로운 물결에도 자신을 쉽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자책에 무릎을 치고, 외국인을 혐오하는 자신을 발견하며, 그러한 것이 외국인들의 기분을 상하게 할 까봐 솔직하지도 못합니다.” 그녀는 회중들을 웃기게 하기 위하여 원주민의 말투를 흉내내어 간략하게 표현한다.

“람 크루즈 씨, 당신은 퀘벡 문화의 울퉁불퉁한 길 위에서 나를 따라오지 못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중앙난방이 되지 않는 유럽의 추운 카페에 서있는 작은 도끼인 당신이 모든 것을 즉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 쪽에 재력가도 없고 유산으로 물려받은 고풍스러운 예술 작품도 없었기 때문에 국민투표 이후에 스피 앤 스파 37)의 세계 속에 빠져있는 위생적인 원주민의 관점으로 나는 한 수 가르쳐 드렸어요. 다만 우리는 더욱 풍부하게 말하는 것이랍니다. 모피로 가득찬 짐을 들고, 이 지방의 농담들을 가지고서 당신의 집으로 돌

37) 스피 앤 스파 (Spic and span)은 잘알려진 세계의 상표이다.

아가서 꼭 쉬면서 내가 말한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³⁸⁾

이탈리아계로서 그 조부가 퀘벡에 정착한 클로드 코르보는 자신의 에세이³⁹⁾의 제2장에 ‘프랑스에 대하여’라는 제목을 붙입니다. 그로 해서 그의 증언은 더욱 큰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나로서는, 프랑스와의 관계는 어쩔 수 없이 나를 퀘벡적 자기동일성으로 귀착시킨다. 나는 오직 이 자기동일성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퀘벡인들은 그러므로 프랑스인들과의 차이를 주장하며, 북아메리카의 불어권 주민이라는 차이점을 권리로서 주장합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 이는 프랑스에 대한 거부의 태도와도 유사한데, 불행히도 이러한 거부는 그렇게 드물지 않은 것입니다. 반대로, 장 라로즈 Jean Larose는 『가난한 이의 사랑』⁴⁰⁾에서 너무 자화자찬하는 경향이 있고, 불어를 잘못 말하고, 소홀히 글을 쓰는 수많은 약점을 애국주의의 이름으로 변명하는 경향이 너무 심한 퀘벡인들에게 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불어를 완전히 훌륭하게 구사할 수 있게 해 주지 않는 교육 앞에서, 그는 정치가, 작가, 그리고 교수들에게 범용함에 만족하지 말고, 프랑스의 작가들과 문화전달자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겸허하게 존중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최근의 주장은 방임주의가 현존하는 만큼 그 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데, ‘조용한 혁명’ 초기의 『어떤 수사(修士)』⁴¹⁾를 생각해 합니다.

결 론

38) 프랑신느 노엘, 『최초의 미리암』, 몬트리올, VLB Ed., 1987.

39) 클로드 코르보, 『나의 소속, 퀘벡의 상황에 대한 에세이』, 몬트리올, VLB Ed., 1992.

40) 장 라로즈, 『가난한 이의 사랑』, 몬트리올, 보레알, coll. papiers collés, 1991.

41) 장-폴 데비앵 Jean-Paul Desbiens, 『어떤 수사의 무례함』은 출간되면서 폭발적인 영향력을 가져왔다. (몬트리올, 인간출판사, 1960) 그 당시의 교육을 신랄하게 비판하던 이 책은 즉시 십만부가 팔려 나갔으며, 계속해서 꾸준히 팔리고 있다.

문화적 특수성을 말한다고 해서, 자신과 그의 동료, 형제인 인간존재와의 친족관계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미롱에게 있어서 '퀘벡인은 그 어느 누구도 닮지 않은 소년'입니다. 하지만 또한 이 시인은 그가 '표절해 온' 42) 계통의 작가들에게 감동적으로 사의를 표하고 있으며, 퀘벡에서 시인이 행해야 할 지도자로서의 역할의 어려움을 상기시켜 주고 있기도 합니다.

“내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먼 곳에서부터
 유럽의 가옥들처럼 뻣뻣해진 가슴으로
 내가 물려받은 빈약하고 차가운 말들과 함께
 내 거친 사유의 천성적 빈약함과 함께
 나는 짐수레를 끄는 말처럼 시 속으로 나아간다.”

안느 에베르 Anne Hébert는 퀘벡을 세계사 속에 다시 위치시킵니다. 더욱 넓은 시야를 갖고 있는 이가 여성이라는 사실이 나로서는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숲 한가운데에 정원을 만들고, 보물처럼 그것을 방책으로 둘러싸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최초의 남자는 루이 에베르라 불렀고, 최초의 여자는 마리 불레였다. 그들은 프랑스에서 가져온 씨앗들을 최초의 동산에 뿌렸다. 그들의 머리 속에 남아 있는 동산의 추억, 그 동산의 개념에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의 동산을 구상했다. 이 신세계의 숲에 던져진 정원은 착각할 정도로 프랑스의 정원과 흡사했다. 온통 야생의 대지 한가운데에 홍당무, 채소, 파, 양배추 등이 측량줄에 의해 정렬되어 뻣뻣하게 늘어섰다. 드 몽스 씨가 아카디아에서 가져온 사과나무가 마침내 열매를 열었을 때, 사과나무 앞에 선 아담과 이브와 함께 이 동산은 세계 최초의 동산이 되었다. 새로운 대지에 선 한 남자와 여자로 하여 세계의 모든 역사가 다시 쓰여지기 시작했다.” 43)

42) 더욱 많이 읽을수록, 더욱 글을 잘 쓸 수 있다.

43) 안느 에베르, 『최초의 동산』, 파리, 르 쇠이유 출판사, 1988.

이처럼 퀘벡의 작가들은 불어권 지역에, 수없이 많은 면을 지닌 퀘벡의 자기동일성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동일성이 편린적으로 나타났다면, 이는 여러 다른 조명에 의해 이 자기동일성이 비추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각은 더욱 강렬한 빛이 시선을 끄는 바로 그 시점에 조명된 것만을 볼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감추어져 있는 것을 짐작하고 다양한 단장들로부터 단일한 총체, 조화롭고 균형을 이룬 하나의 총체를 구성해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일 것입니다.

<황준성 역>